



기획재정부

보 도 자 료

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
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

보도 일시	2022. 11. 4.(금) 11:00	배포 일시	2022. 11. 4.(금) 11:00
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

담당 부서 <총괄>	경제정책국 정책기획과	책임자	과 장 정규삼 (044-215-2810)
		담당자	사무관 이종민 (jmlee88@korea.kr)

제11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개최

□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11.4(금) 10:30 정부서울청사에서 「제11차 비상경제차관회의」를 개최하여 다음 안건에 대해 논의하였음

- ❶ 에너지 절약 보완방안(관계부처 합동, 제목만 공개)
- ❷ 중소기업 수출현황 점검 및 대응방향(중기부, 제목만 공개)
- ❸ 해외기반시설 수주 활성화 전략 이행점검(국토부, 제목만 공개)

※ [붙임] 기획재정부 1차관 모두 발언

붙임

기획재정부 1차관 모두발언

제11차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.

지난 11.1일 발표된 10월 수출입 동향에서 확인할 수 있었듯이, 에너지 수입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전반적 수출 흐름이 약화되며, 당분간 무역수지 흑자 전환이 여의치 않을 전망입니다.

* 무역수지(억달러): (22.1)△49 (2)8 (3)1 (4)△25 (5)△16 (6)△25 (7)△51 (8)△94 (9)△38 (10)△67

이에 정부는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(10.27일)와 비상경제장관회의(11.1일)를 통해 신성장 수출동력 확보 전략 및 실행계획을 집중 논의하였으며,

금일 회의에서도 에너지 수입 절감을 위한 에너지 절약 보완방안을 집중 검토하고, 우리 수출의 버팀목인 중소기업 수출 동향을 점검하는 한편, 해외인프라 수주 활성화 이행 상황도 함께 논의할 계획입니다.

첫 번째 안건인 ‘에너지 절약 보완방안’입니다.

정부는 지난 9.30일 ‘에너지 절약 및 효율화 대책’을 발표하고, 비상경제차관회의(10.14일)를 통해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등 에너지 절약을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전개하고 있습니다.

아직 날씨가 많이 춥지 않아 절약 분위기가 본격 확산되지는 않고 있으나, 올 겨울 기온이 예년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*되는 만큼 보다 강도 높은 에너지 절약 노력이 필요합니다.

* 기상청 3개월 전망(22.11월~23.1월, 10.24일 발표)



이를 위해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, 지자체 등을 포함한 전 공공부문이 에너지 사용량 10% 절감을 목표로 실내 평균온도를 17도로 제한하고, 실내조명을 30% 이상 소등하는 등 앞장서서 허리띠를 졸라매겠습니다.

범국민 에너지 다이어트 서포터즈 발대식 개최(11월중), 지상파·종편 17개 매체에 에너지 절약 공익광고 송출, 전국 주요 역사(60여개)에 홍보 포스터 게시 등 에너지 절약 분위기 확산을 위한 전방위적 홍보도 진행하겠습니다.

국민 여러분의 적극적 동참을 부탁드립니다.

두 번째 안건은 '중소기업 수출현황 점검 및 대응방향'입니다.

올해 중소기업 수출은 9월까지 누적 889억불로 전년동기대비 5.8% 증가하였으나,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따른 소비 위축, 중국 경기 둔화 등으로 6월부터 증가세가 둔화되는 모습¹⁾입니다.

특히, 중소기업의 10대 수출국가²⁾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對중국(△2.9%) 수출이 감소하고 있으며, 10월에도 우리 경제 전체의 對중국 수출이 큰 폭 감소(△15.7%)한 점을 감안할 때, 중소기업 수출도 둔화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.

이에 정부는 중소기업 수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해외시장 개척을 단계별로 지원³⁾하는 한편,

1) 中企 수출증감율(전년동기대비, %): ('22.4)6.4 (5)10.4 (6)△3.7 (7)△1.7 (8)2.5 (9)△0.5
2) 中企 수출 국가별 비중(%): (중국) 18.9 (미국) 14.7 (베트남) 9.7 (일본) 9.4 (대만) 3.2

중소기업 수출 비중이 큰 온라인 분야는 포토프린터 사례⁴⁾ 등 수출 선도모델을 발굴하고, 뷰티, 푸드, 리빙 등 소비재 분야는 현지 쇼핑몰 입점 등을 통해 해외 판로 확대를 지원하겠습니다.

또한, 범부처 현장밀착 수출투자지원반 가동 등을 통해 기업 애로사항을 발굴하여 12월 중 「수출 중소기업 지원방안」을 마련·발표하겠습니다.

세 번째 안건은 지난 8월 마련한 '해외기반시설 수주 활성화 전략'의 이행상황 점검입니다.

연간 수주 목표 500억불 달성을 위해 금일 국토부 장관께서 사우디아라비아로 출국하시는 등 11월부터 「원팀 코리아 사우디 수주지원단」을 본격 가동하였으며, 네옴시티 현장방문, CEO 면담 등 기업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.

아울러, 민관 합동 「해외건설 수주지원단」을 연말까지 구성하여 향후 주요 지역별 진출전략을 체계적으로 마련·이행해 나가겠습니다.

사업관리(PM)·설계와 같은 고부가 분야 기업역량 제고를 위해 공공공사 발주 환경 정비*를 추진하고, 정책금융 확대, 민간 인프라 금융투자 촉진 등 금융 지원도 지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.

* 시공책임형 CM(시공자의 설계 참여) 제도화, 3D 설계 시스템 공공공사 도입 검토 등

이상으로 모두 발언을 마치고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.

(모두발언 종료)

3) 예: 수출초보·내수 중심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기업 전환 지원, 수출액 1천만달러 이상 중소기업에 대한 마케팅·R&D 등 패키지 지원 등
4) 국내 중소기업이 미국 아마존 판매 1위